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골3:12-25

예수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를 가장 잘 보여 주는 비유 중에 동물적 본능과 식물적 본능의 차이가 있습니다. 야생동물의 세계는 철저히 약육강식입니다. 약한 동물은 육식동물이 나타나면 무조건 도망쳐야 합니다. 반면에 식물은 어떻습니까? 밟고 잡아먹는 방식이 아니라 땅속에 뿌리를 내려서 수분을 흡수하고 태양의 빛을 받아 열매를 만들어 생존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식물적인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을 짓밟기보다 스스로 절제하고 훈련으로 말씀으로 받아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품성의 변화를 중심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 오래 참음의 삶(기다림)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성령의 9 가지 열매에도 ‘오래참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인내를 하지 못해 두 가지 큰 낭패를 했습니다. 흥년을 참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가나안에 들어온 지 10 년후 85 세에 자식이 없으니까 더 참지 못하고 여종 하갈을 취하여 86 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 결과로 이 많은 슬픔이 중동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6 장 14 절로 15 절에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참아야만 받는 것입니다. 탈무드에는 ‘성공의 절반은 인내심’이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시겠다는 약속 이후 25 년이 걸렸습니다. 야곱은 20 년이 걸렸습니다. 요셉은 그의 약속을 꿈으로 받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13 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모세는 무려 40 년이 걸렸습니다. 야고보서 5 장 10 절로 11 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옴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무궁하신 지혜와 섭리를 우리가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2. 용서의 삶

“골 3:13-14)누가 뉘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마음에는 사람을 향한 분노가 없습니다. 모든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용납해 주지 못할 것이 없고 사랑하지 못할 것이 없게 됩니다.

에베소서 4 장 32 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명령이십니다. 잠언 19 장 11 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고 하십니다. 죄를 용서하는 것은 나의 수치요, 연약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남을 용서하는 것이 나의 영광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누가복음 23 장 34 절을 통하여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용서하셨습니다.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내가 짊어져야 됩니다. 고통을 내가 담당해야 용서가 가능하게 됩니다. 용서는 말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을 받으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내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속에 받아 들일 때 비로소 이 모든 미움과 원한을 극복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내가 이웃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어서 우리의 기도가 막혀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로 원하는 사람에게 용서란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한없는 용서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3. 평강이 주장하는 삶

“골 3:15)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모든 불안이나 두려움을 내어

쫓고 절대로 평안한 상태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에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절대적으로 평안할 수 있습니다.

참된 평화란 마음속에 평화입니다. 마음에 평화가 없으면 환경의 평화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탐심이나 욕심을 제거해야 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에덴동산에서는 결국 탐심을 통해 죄악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사라지게 되며 불평과 두려움이 찾아보게 됩니다. 그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어진 삶을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William Law 라는 사람이 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인이라는 사람은 기도를 특별히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금식을 자주 하는 사람도 아니고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절제를 잘하는 사람도 의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려는 그 사람이 진정한 성자이다"** 있는 것을 보고 지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한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주시는 것입니다.

4.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 지기 위해서 두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히 채워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집니다. 부흥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가 응답됩니다. 두 번째는 무슨 일이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나 자신은 없어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일하게 하시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일하시니까 사람들 사이에 마찰이나 다툼이 일체 없게 됩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우리는 죽고 성령의 감화를 따라 말하고 행할 때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5. 질서가 있는 가정의 삶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질서를 위해 남편을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부부간의 질서는 반드시 사랑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정신적으로 괴롭히거나 완력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은 결국 배우자입니다. 자기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위선이나 부정입니다. 그리고 자녀입니다. 자녀를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의 문제는 자식을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이를 대신 말아서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 편에는 자식은 여호와와 주신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기업은 신경을 쓰고 잘 관리를 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자존심을 지켜주면서 교훈해야 합니다. 어린아이 때에도 조그만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 자존심을 짓밟아버리면 어린아이는 그만 낙심하고 맙니다. 들풀처럼 야생마처럼 행하고 나중에는 견잡을 수 없이 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살려주어야 합니다.

사도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품성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용서와 평강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즉 말씀의 원리대로 가정과 자녀를 다스려 나가며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을 다스려 나가고, 자녀를 양육하는 근원이요 능력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눔의 시간

1. 이번 주 설교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으며 내가 적용한 것은 무엇입니까?
2.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일반적 한계를 뛰어 넘는 '인내'를 실천하거나 간접적으로 경험하신 것과 그 결과에 대해서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3. 용서를 통해(용서 받았거나 베푼 것 중 택일)회복된 인간관계 중심으로 경험한 은혜들을 나누어 주십시오.
4. 여러분의 삶의 정황 속에, 1) 인내로 나가야 할 부분 2)용서함으로 나가야 할 부분 3)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뛰어 넘어야 할 부분 4)말씀의 채우심을 받아야 할 부분 5)가정 생활에 질서를 세워야 할 부분에서 적용하고 실천해야 할 것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주십시오.
5. 4월 20일에 예정된 새생명축제를 위한 VIP선정을 위해 합심기도하고, 명단을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